

唯心論에 對한 一考察

엘 니 옣 트

그래서 吾人은 (一)機械論을 放棄하든지, 그러치 안으면 (二)二元論을 放棄하든지, 이 두 가지 中의 한가지를 選擇할 수 맞게 업다. 그런데 機械論은 벌써 立証되어 있는 生理學上의 學說이다. 卞러서 吾人은 形而上學的인 先入見에는 엇더한 影響을 與하더라도 어디까지 이 學說을 堅確히 把持하지 안으면 안되겟다. 卞러서 吾人에게 殘餘된 唯一의 方道는 二元論의 放棄이다. 卽 吾人은 隨伴現象論者의 主張함과 갓흔 腦髓作用에 附□하는 그림자 갓흔 허부애비가 存在하지 안는다는 것, 心이라 肉體라 名하는 根本的으로 相異한 二個의 物은 存在하지 안는것이라는 것을 主張하지 안으면 안니된다. 한 알노 말하자면 吾人은 心이라는 것은 腦髓 作用 그것으로서 腦髓 作用에 伴하는 想像的의 隨伴物임은 안니라는 것을 主張하지 안으면 안니된다. 卞러서 이것은 未久에 吾人이 本章의 始初에 試見한 種々の 推論에 依하여 到達한 結論과 精密히 一致한 것이다. 物質은 다만 經驗의 一形式이고, 卞러서 心的의 表現도 또한 同一한 經驗의 一形式이라는 것, 또는 基本的의 經驗은 聯合하여 보다 더 큰 구루푸를 만들 수 잇는 것을 生覺해 보면 엇든 感覺과 엇든 腦髓 作用이 同一物이라는것을 理解하는것은 붉은 빛이나 堅固함 갓튼 것이엇든 物質的인 物의 性質과 同一物인 것을 理解하는 以上으로 큰 困難은 업슬 것이다.

나는 心은 獨立한 個別의 存在物인 것은 안니라, 或 種의 神經 作用 乃至는 腦髓作用의 總和를 指한 名稱으로서 卞러서 物質的인 現象과 同一視할 것인 것을 述하엿다. 이 命題를 理解하기의 困難은 無機界의 一現象에 依하여 크게 緩和될 줄노 생각한다. 卽 無機物의 世界에는 이 有機世界의 奇妙한 產物(心)과 精密히 恰似한 一現象이 잇는 것이다. 卞러타는 것은 불(火)이라는 現象이다. 古代의 끼리샤 哲學에서는 宇宙는 地와 空氣와 火와 水로 되엿다고 미덧섯다. 卞러서 그 中에서 불은 他의 三者에 比하여 特別한 實體이라고 미덧섯다. 그런데 今日에는 吾人은 불, 그것은 何等의 實體도 안이고 엇

은 一定한 化學的 作用 -例하면 炭素의 酸化作用-의 現象으로서 이 作用이 道程에서 炭素物質이 光과 熱과를 發하는 것이라는것을 知한다. 焔의 內에는 化學的 變化를 受하면서 잇는 是等の 分子 以外에는 全히 아모것은 업다. 그러치만 教養이 업는 사람들에게는 焔은 化學的 活動力이 잇는 物質的인 微分子의 單純한 集合과는 全然 相異한 特別한 實體인 것 갖치 보인다.

吾人은 精密히 此와 同樣으로서 心의 存在를 說明할 수 있다. 眞實노 存在 하여 잇는 것은 다만 神經 系統의 實質을 成한 바의 物質的인 微分子 뿐이 다. 그래서 是等の 微分子가 잇는 種類의 化學的 活動을 始作한 境遇에는 心 이라 名하는 새로운 種類의 捕捉할 바이 업는 非物質的 實體의 存在를 暗示 하게된다. 그러치만이 實體가 現實인 存在를 有치 안은 것은 火와 同一하다. 如何한 境遇에나 分解 그 又 結合作用을 受하면서 잇는 分子外에는 徹頭徹 尾, 아모것도 업다. 그래서 이 化學的活動 뿐으로 活動의 中心에서 流出하는 現象 全體를 說明할 수가 있다. 尙且 그 위에 무엇이나 餘分의 獨立한 實體 가 있다는 信仰은 한 個의 迷妄으로서 이 迷妄, 그것도 未久에 物理化學的의 言語로 言表할 수 잇고 說明할 수 있다. 火焰은 모든 方向으로 急速히 閃出 하고 消滅한다. 그리고 卽時 또 同樣的 形으로 再現한다. 잇는 一個人의 觀念 乃至는 情緒도 그와 갖치 그것이 새로운 位置로 옮김(移)에 차라서 잇는 瞬間 동안 心에 새로운 通路를 열(開) 수가 있다. 그래서 火의 境遇에나 心의 境遇에나 形態의 變動은 化學的 活動의 區域이 不斷히 變化하는 까닭이 다. 그래서 불이 아주 暫間 동안은 比較的으로 變動이 업는 形態나 「크기」를 保함과 갖치 一個人의 心의 內容도 一時 동안은 畧々 同一한 強度를 保하고 그래서 同一한 注意의 對象에 結着하는 傾向이 있다. 불은 어느 새는 얕게 (低)타고 또 어느새는 急한 形勢로 燃上한다. 火와 心이 精確하게 類似한 것 은 이 兩 個의 現象이 同一한 根底 上에 서(立) 있다는 事實에 依하는 것이 다. 一方은 無機物質의 表現이고, 一方은 有機物質의 表現인 까닭으로 차러 서 그 化學作用에서도 훨씬 複雜하다.

一元論이 事物을 二元論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與하는 衝擊을 한번 突破하게 되면, 形而上學의 大多數의 困難은 스스로 消滅한다. 나는 意志의 動作에 依하여 나의 팔뚝을 든다. 普通의 人은 나의 意志가 그리케 하였다고 主張한다. 그러치만 生理學者는 그것이 腦髓에서의 物理化學的 作用이엇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哲學者가 나타나서 意志는 物理化學的의 作用으로서 兩者는 同一物을 指한 것이라는 것을 指摘한다. 그래서 困難은 비로소 解決 된다. 自由意志와 決定論과의 全 論爭은 雙方의 同一한 [것을] 말하는 것으 로서 다만 다른 것은 用語의 相異라는 것이 알려지면 卽時 解決된다. 隨伴現

象論者의 困難도 同一하게 解決된다. 隨伴現象論者는 自己로는 心을 持하였다고 말한다. 그러치만 彼로 해야금 如斯히 말하게 하는 것은 「心을 持하는 超越的인 知識」임은 안이고 엇든 一定한 腦髓의 狀態이다. 그래서 吾人이, 이 知識과, 이 腦髓의 狀態라는 絶對로 同一物이라는것을 斷定한 때에 一切의 困難은 消滅한다. 心이라 함은 腦髓 狀態의 總和이다. 그는 自身은 心을 持하였다고 한다. 그로 해야금 如斯히 말하게 하는 것은 엇든 腦髓狀態에 存在이다. 그는 이 腦髓狀態를 持하였습어야 말노 心을 持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辯明은 心이란 것은 腦髓狀態를 指하는것이란 假定上에서만 비로소 眞實하고 聰明한 것이다.

更히 一元論에 依하여 撤廢된 困難은 心の 統一과 人格이란 困難이다. 吾人은 自己의 意識은 單히 斷片的인 要素의 連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안이고 是等の 要素는 單一한 實體-心 乃至는 靈魂-의 種々の 性質로서 結合되어 있는 것 을 感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意識의 統一은 神經系統의 統一이라는 것에서 精密한 照應을 發見한다. 神經 活動은 어느 瞬間에는 神經 系統의 엇든 特殊한 部分에 集中 되는 傾向이 있는 것은 임의 指摘함과 같다. 그래서 이 活動의 焦點은 神經 系統의 엇든 部分에서 다른 部分으로 移動하기는 하나 普通은 어느 瞬間에 神經 系統의 넓은 區域에 擴大하는 일은 업다. 如斯히 그 때 그 때에 機能上의 活動으로 비취여 (照)있는 神經 系統의 區域은 그 때~에 經驗된 意識의 狀態에 照應하는 것이다. 그래서 活動의 焦點은 神經 系統의 엇든 部分에서 다른 部分으로 自由롭게 移動할 수는 잇스나 決코 神經 系統의 밖(外)으로 移動할 수는 업는 것과 갓치 種々の 意識狀態는 心の 限界 內에서 次々로 生起하는 것으로서 如何한 意識 狀態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一個人의 心の 一部分이 아닌 意識狀態를 經驗할 수는 업다.

一元論은 또한 意識의 起源에 對하여서의 生物學上의 큰 困難까지도 解決한다. 生命의 起原에 對하여서의 生物學의 活動에 依한즉 生命이 잇는 有機物質은 生命이 업는 無機物質로부터 進化에 依하여 發展한 것이라는 것이 된다. 人間이 單細胞의 先祖에서 無機物質에서 漸次로 進歩한 것이라는 것은 거의 아니 夏等の 容疑할만한 理由가 업다. 그런데 二元論者는 말한다. 人間은 現在心을 持하였다고, 그러타고 보면 無機物質은 心理的인 隨伴物을 伴하여 잇든가 그러치 안으면 進化의 過程에서 急激한 跳躍이 잇섯든 것이 안이면 안되겠다. 卽 心은 人間의 過去의 歷史의 엇든 時期에서 突然, 趣入하여 온 것이 안이면 안되겠다. 그러나 此兩 個의 假設은 엇든 것이든지 容易히 納得할 수가 업다.

아니 두렵건데는 實際로 生覺할 수도 업는 것이다. 그런데 一元論의 敎義

는 宇宙間에는 二 個의 究極的인 物이 잇는 것이 아니라, 다만 一個의 物이 잇다는 主張에 依하여 이 困難을 一掃한다. 왜그러냐 하면 此에 依하여 有機體의 進化의 過程에서의 如何한 時期에도 새로운 實體를 引入할 必要는 別서 全혀 없기 때문이다. 吾人의 學說에 從하면 意識狀態는 神經의 잇든 特殊한 動作이다. 神經 要素가 無機物質로부터 進化的 過程에 何等의 斷絶이 없게 되면, 意識의 進化에도 何等의 斷絶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勢不得已 吾人은「蛇에게는 感情이 잇을 것인가?」라고 말하는것 같은 此種의 問題에 對하는 答에 言及하지 안으면 안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勿論, 全然根據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冷血動物에게는 感情이 없다는 迷信이 一般으 로行하여있다. 그래서 下等 動物은 어느 程度의 感覺을 持하였는가 하는 問題는 여러 가지의 人間의 行爲가 그들에게 입피는 苦痛의 程度를 計하기 爲하여 重要하겠다. 그래 只今 吾人은 感情의 分量은 神經 系統의 發達 程度에 달였다는 大體의 答을 할 수 잇는 處地에 잇스나 生理心理學이 進步하게 되면 吾人은 버텨 精密하게 答할 수가 잇을것이다. 吾人은 今日 까지로서는 苦痛은 神經 機能의 一樣態이라는 事實을 겨우 理解한것 뿐으로서 如何한 樣態의 動作인가하는 問題에 對하여서는 아즉도 거의 下等의 進步도 잇지 못하였다. 苦痛이 全然 잇든 特殊한 物理化學的의 作用인 것은 吾人은 조금도 疑心치 안는다. 그래서 한번 吾人이 이 作用의 性質을 精確히 알고 또 그 動物의 生理化學的 構造를 精確히 알엇드면 그제야말 노吾人은 觀察에 依하여 그 動物이 精確히 얼마만침의 苦痛을 感하고 잇든 瞬間에 實際로 얼마만침의 感覺을 持하였는가를 明言할 수 잇을 것이다. 現에 動作하고 잇는 物理化學的의 作用을 明白히 함에 依하여 吾人은 苦痛, 그것을 明白히 할 수 잇겠다. 나는 얼마만침 不調和로 보이 는教義를, 道理 잇는 것으로 할 뿐 아니라 도로혀 事實을 說明할 수 잇는 唯一한 道理잇는 方法되게 하 는議論을 더 한번 反覆하여 두고져 한다.

吾人의 多方面인 經驗 中の 한 個, 게다가 不幸히도 만드시 遭遇할 經驗의 한 個는 苦痛의 經驗이다. 心이 發展하여 種々인 經驗의 要素가 結合하여 聯合을 形造하게 되면 吾人은 物質의 概念이라는 이보다도 차라리 物, 그것에 到達한다. 그래서 物理學은 不斷히 새로운 要素를 聯合한 구루푸에 附加한다. 내가 目前에 보는 綠色의 箱子는 物理學者에 依하면 無數히 震動하면서 잇는 別々 分子의 集合으로 되어 있다. 이 無數한 分子는 또한 同樣으로 震動하면서 잇는 原子의 小 구루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原子는 또한 다시 조고만 單位로 分割할 수가 있다. 於是 乎只今 내가 본 綠色의 箱子는 外觀上으로는 이 無數히 孤立한 微分子軍에게 固有한 것으로 생각되는 感覺과는

全然 일토당토 안은 것이다. 一方은 連續한 것이고 一方은 斷絶한 것이다 一方은 靜止한 것이고 一方은 그 全體到處에 急速히 [運動]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方에 依하여 所與된 感覺은 只今은 他 一方의 것에서 引出할 수 있는 潛在的의 感覺과 聯合한 것으로서 吾人은 此兩者는 同一物이라고 斷言해야 조금도 疑心치 안는다. 마치 그와 갓치 苦痛의 感覺과 神經細胞에서 생기는 物理化學的 作用의 觀察에서 引出된 感覺(現實의 感覺과 潛在的의 感覺)과의 사이에는 何等의 類似도 엮는 것 갓치 보인다. 그러치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兩者는 緊密히 또한 如何한 境遇에도 結合하여 잇는 것으로서 압서의 境遇와 갓치 吾人은 兩者를 同一物이라고 斷定치 안을 수 엮는 것이다.

그래서 感覺은 어느 程度의 下等 動物에게까지 잇는가. 라는 問題는 吾人이 感覺과 同一物로 見做하는 바의 物理化學的 作用은 어느 程度의 下等 動物에게까지 存在해 잇는가 하는 一層 合理的인 問題로 되어 온다. 하기는 이 問題는 右의 物理化學的 作用이 正確히 알녀 진 뒤가 아니면, 確定的의 答을 할 수는 엮다. 그래서 爲先은 思辨을 試할 수 맞게는 엮다. 그리고 感覺은 組織과 同時에 生하는 것으로서 前述한 物理化學的 作用은 元來 神經系統에 至하여 비로소 最高의 活動에 達하는 것이기는 하나 何等의 分化만도 하지 안는 原形質 그것에 잇서서도 極히 原始的인 狀態로 存在해 잇는것이라고 보는 것은 가장 注目할 만한 思辨이다.

吾人의 到達한 哲學上의 結果와 神經 系統의 構造와를 暫間比較해 보는 것은 그저 無益하지 안을 줄안다. 吾人은 全精神 生活을 만든지, 적든지 密接한 結合을 形造하는 性質이 잇는 基本的인 感覺에서 策成하여 왔다. 그래서 吾人의 關하는 限에서는 感覺이야 말노 唯一의 根本的인 實在이고, 이 感覺의 聯合이야 말노 唯一의 根本的인 作用이다. 例하면 「存在」라 함과 갓튼 모든 抽象的인 觀念은 此에 關係한 感覺이 各種의 程度의 密接性을 가진 聯合을 形造하여 複雜한 것이다. 一般으로 「存在」라 함은 物의 一性質이다. 卽 엮든 一定한 條件下에서 엮든 一定한 感覺 을惹起할 만한 傾向을 意味하는 性質이다. 그래서 「存在」라 하는 것은 究極은 視覺上의 感覺, 觸覺上의 感覺 乃至는 其他의 感覺이 생기리라 하는 豫見이라는것에 歸着 되는 것이다. 내가 「一般으로」라 한 것은 「存在」라는 말은 日常 使用되는 모든말과 갓치 그 意味에는 明確한 制限이 엮시, 여러 가지 意味로 使用되기 새문이다. 그러치만 只今 내가 理解한 것 갓흔 意味에서가 아니면 이 議論에는 何等의 興味도 엮다.

由來數多한 形而上學者로 하야금 例하면 「物質은 存在한 것인가」라든지 「

他人은 存在한 것인가」라든지 「나는 存在한 것인가」라는 것과 갖은 틀닌 酬酌인 非現實的인 問題의 解決에 埋頭沒身하게 하고 그래서 珍妙한 答을 한 것은 (데카르트와 「나는 생각한다. 그런 故로 내가 있다 함은 그의 標本的의 것이다) 要컨대 그들이 如斯한 狀況을 理解하지 못한 때문이다. 萬若感覺의 特殊한 一群이 그 가운데에 存在라는 것에 숨蓄된 感覺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物體은 存在해 있 는것이다. (다만 幻覺은 다른것이다. 幻覺의 境遇에는 이것을 構成한 感覺은 異常한 聯合을 하고 있는 것이다)또 實在의 存在라고 하는 形而上學的 問題도 없다. 엇재 그러나하면 存在라는 觀念 그것은 말하자면 抽象的觀念이오. 實體的의 觀念이 아니며, 그것은 感覺의 聯合의 性質如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危險한 誤謬는 唯心論에서 物質의 非實在를 演繹하는 誤謬이다. 實在도 또 存在와 갖치 이른바 「實體」라는 것의 一性質은 아니다. 物質과 心과를 「經驗」이라는 一項目속에 包括해 버리고 보면 별서 物質의 實在, 體積, 外在性을 조금도 傷하지 안는 것은 心의 根本的 諸性質을 조금도 傷하지 안는 것과 갖다. 物質은 「眞實하다」 乃至 「實在的이다」라는 말 속에 집어 늘 수 있는 가장 넓은 意味에 있어서 眞實한 것이오. 實在的인 것이다. 物質은 物質 그 밋해 積在한 土臺 乃至 實體에 依해서 비로소 實在的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理解할 수 있는 만큼 實在的인 것이다. 「存在한다는 것은 知覺한다는 것이다.」라고 主張할 때에 나는 틱솔 만치도 物質의 實在性을 弱하게 하지 안는 것이다. 그것은 맞치 熱은 運動이라고 말할 때에 나는 틱솔 만치도 熱의 實在性을 弱하게 하지 안은 것과 갖다.

여러 가지 範圍에 結合한 單純한 要素에서 心을 綜合하는 것은 神經 系統의 構造에 精密히 照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卽 神經 系統은 一方에는 中樞神經 節細胞와 他方에는 이러한 細胞를 結節을 통해서 聯合을 保全하는 傳達組織으로 成立되어 있다. 感覺은 全然히 各々 쪼러져서 聯合되지 안는다. 理論上으로 보아서 原始的狀態에는 外層細胞의 사이로 통한 聯合組織은 아직 發達되지 안엇던가 그러치 안으면 結節이 通過되지 안는 狀態에 있다고 想像할 수 맞게 엽다. 感官에 주는 刺戟은 이것에 照應한 外層細胞에 活動을 이르킨다 이 活動이 卽 感覺이다. 그러므로 眼의 刺戟은 腦髓의 엇던 一定한 部分에 빛에 對한 感覺을 잡아 이르키고, 接觸의 刺戟은 腦髓의 다른 部分에 누르는 感覺을 잡아 이르키나 이 두 部分을 聯合 식히는 通路는 열리지 안 엽다. 그리해서 빛의 感覺은 다만 빛의 感覺만에 그치 잇고 觸覺上의 感覺을 [想像] 식히는 일은 엽다. 쪼라서 物質의 概念은 엽다. 그러나 다시 發達되

면 聯合의 通路가 完成되고, 腦髓의 大端히 넓은 區域~에 各々 獨立한 單位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하여 이것이 그 後에 物質觀念의 腦髓的 起源이다. 었던 物質的인 對象을 知覺한다는 것은 두 가지 事實이 包含되어있다. 卽 (一)對象 그 物體, (二)이 對象 感管에 주는 刺戟에 依해서 이르는 腦髓의 活動이다. 前者는 그 對象의 여러 가지 性質이라고 일컫는 感覺의 聯合한 總和이오. 後者는 對象에 對한 意識이다. 그리해서 物質的인 物件의 이러한 二元일수록 後에 心理的과 生理的과의 相異되는데 相當한 것이다.

그럼으로 비로소 우리들은 科學은 었지해서 唯物論을 基礎로 하느냐 었지해서 唯物論이 生命을 取扱하는 唯一의 可能的 假設이라는 것을 깨다를 수가 있다. 觀念의 聯合이라는 心理學上 學說은 모든 智力上 動作(그안에는 一切의 科學上 學說을 包含해서)은, 孤立한 要素를 相互關係에 덤으로 말미 암아서 되는 것이다. 사아 · 아이작크 · 뉴톤은 林檎이 地上에 썩러짐을 보았다. 그는 그 以前부터 遊星으로 하야금 그 軌道를 직히게 하는 原因을 생각하고 었었다. 이러한 두 가지의 懸隔한 事實이 急히 關係를 맺게 되어 갖흔 한 個의 法則을 說明하는 例證으로 認識할 새에 비로소 引力法則을 發見하였다. 이러한 觀察과 整頓과는 科學의 究極的 二要素이다. 觀察에 依해서 對象의 諸性質이 記錄되고 整頓에 依해서 그것을 概括 되고, -分類되고, 그리하여 그 以前에 벌서부터 가지었던 知識의 體系와 一定한 關係 우에 노히게 된다. 여기서도 우리는 熟知하고 通曉한 心的生活의 本源的 要素를 볼 수 있다. 卽, 새로운 感覺이 注意圈內에 드러오면, 그것은 觀察에 相當하고 그리해서 이러한 새로운 感覺과 다른 既知의 聯合한 感覺과의 사이에 새로운 聯合이 形成된다. 그리해서 이것은 整頓에 相當하다. 가장 深遠한 科學의 觀念이라도 그것은 밝안 어린兒孩의 마음속에 처음 物質의 觀念이 造成되는 것과 精密히 갖흔 方法으로 되는 것이다. 複合된 感覺이 物質의 基礎이다. 었던 科學上의 學說이란 생각컨대 幾千萬이라는 無數히 孤立한 觀察을 結合하여 부지러진 새를 聯合식힌 記述 外에 아무것도 아니다. 物質의 發見은 科學의 基底이며, 知識創造의 第一步이다. 感覺은 처음엔 不〇自由이었으나, 뒤에는 結合되야 적은 一群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는 物質이 된다. 小群이 結合하여 다시 大群이 되고 이리하여 우리들은 비로소 科學의 端緒를 붙잡게 된다. 이러한 大群이 다시 結合되여 科學의 가장 큰 概括을 었게 된다. 或者는 이러한 카드란 群이 複合되고 複合된 것이 다시 複合되야 드디어 感覺할 수 잇는 現象全體가 다만 「하나」로 概括할 새를 呑우고 있다. 그들은 全知識의 一大統一을 呑우고 있다.

或은 그러한 새가 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었재던 우리는 科學만이 여러

가지 雜多한 經驗의 項目 가운데 볼 수 있는 複雜한 가장 情致한 聯合된 記述이라는 結論에 涉러지고 漫다. 物質은 經驗의 모든 項目 中에, 온갖 聯合 中에 가장 基本的이오, 가장 單純한 聯合에 相當하다. 故로 科學은 於此 彼 物質을 基礎로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科學의 單位는 物質的인 物件이라 일컫는 小群이라야 된다. 科學과 物質과의 關係는 代數學과 그 方程式에 드러오는 $x \cdot y \cdot z$ 의 記號와의 關係와 갓다. $x \cdot y \cdot z$ 는 엇던 一定한 算數上의 分量을 代表하는 것과 갓치 갓치 그와 갓치 「테-불」이라 부르는 物質的인 物件은 엇던 一定한 基本的인 感覺을 代表한다. 여기에 萬若科學이 物質이라는 基礎를 除外하고 할 수 업시 原始的인 感覺에서 出發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갓흐면 그것은 갓치 代數의 記號와 計算法을 쓰지 못하고 抄라서 算數的 數字 漫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算術과 갓다.

故로 唯物論을 根底로 하지 안은 科學, 乃至는 唯物論과 矛盾되는 科學이란 것이 잇슬 수 잇는 것이냐 무르면 對答은 當初부터 노-이다. 科學은 物이 唯物的 排列에서 生한 產物이오, 物質우에 스는 것인데, 그것은 쯤 物理學이 勢力(에넬기-) 保存우에 스는 것과 갓다. 이러한 唯物論에도 何等 두려울 것이 업다. 엇재 그러나하면 그것은 다만 感覺이 서로 結合되는 方法을 指示한 이름임으로 그러하다. 智識은 聯合이다. 故로 唯物論은 一切의 智識을 代表하는 聯合한 感覺의 큰 排列者를 가르킨 이름이다. 自由스런 聯合 되지 안은 感覺 乃至 感動은 지금까지는 唯物論的인 排列表外에 남아 잇섯스나 그것은 同時에 아모것도 모르는 基本的 事實로서 남아 잇다. 精神狀態에 關한 智識에 對한 唯一한 希望은 이러한 事實도 唯物論的 排列表 中에 編入 식힐 일이다. 多幸히 成就하려는 機運에 達했다. 精神狀態와 腦髓狀態와의 同一物임을 證明 식히는 것은 갓 이러한 事物을 物質과, 物理學과 生理學과의 法則下에 가져 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科學에 잇서 各々 確立된 概括과 原理와는 이제야 精神領域에 잇서서 同時의 存在와 連續 關係와에 關한 智識 供給에 쓰게된다. 그리하여 적어도 科學者는 生理學者나 心理學者까지도 物質 以外에는 何等의 存在를 認定치 안케 되었다. 物質이란 그 別物로서인 心은 因果 關係 乃至 科學的 說明에는 何等의 役割도 업는 것으로 全然히 消滅된 것은 이 때문이다. 心理學者가 心이 업는 物質만이라 는 假定우에 人間의 動機를 分析하고 그 行爲를 豫言할 수 잇는 것도 이 때문이다.

唯物論에 關한 우리의 結論은 이러하지만 그러면 如何한 時代에던지 建立하여온 數 漫흔 哲學과 神學과의 體系에 對해서 엇더하냐. 一般으로 그러한 體系는 虛構한 實體의 存在를 想像함으로써 難點을 說明하고 解決을 주

려고 試驗하였었다. 宗教의 境遇에는 例證을 들 必要도 업다. 여러 가지 神學의 體系는 全然 物質的인 性質을 가진 한 개의 神, 乃至 만흔 神이 存在한다는 臆斷에서 出發한다 이렇케 神의 存在는 心과 肉體와에 對해서 이러나는 엇더한 難實이던지 쏘는 其他 哲學上 엇더한 問題던지 무어던지 곳 塗糊할 수 잇는 說明이다. 十九世紀에 잇서 科學과 宗教 間에 잇섯던 大 鬪爭을 다시 이르킬 必要는 업다 오늘날엔 이 問題에는 벌써 큰 興味가 업다. 그리해서 大多數의 思想家는 神學的 說明을 해보려는 如何한 企圖던지 放棄해 버리고 마릿다 神學은 저울에 올났다. 그리해서 重量이 不足 된다는 것이 判明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種類의 心靈的 存在物이 잇다는 信仰은 지금엔 昔日 만 큼 堅固치 안으나 아직 꽤 만히 남아 잇다. 此種信仰의 一例로는 위리암 · 마구도고-르 博士와 갓흔 科學的 擁護者까지도 잇다. 中世紀時代에는 靈魂은 居半 그것이 附着한 肉體에 지고 안케 類型的이란 것으로 看做했었다. 例 하면 十二世紀頃繪畫에는 靈魂은 만커나 즉거나 人間이 形象을 그리고 잇섯다. 靈魂은 목에가 잇고 저울에 쓸 수 잇는 잇이였다. 靈魂은 쏘 物質的인 有機體에 苦痛을 줌과 갓흔 物理的 原因 -例하면 물과 갓흔 것-에서 갓치 苦痛을 맞는 것이였다. 아니 肉體가 업서 진 뒤까지도 그갓흔 原因으로 苦痛을 맞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와 갓흔 信仰은 現在의 原始的인 人民 사히에도 볼 수 잇다 그들은 靈魂에 먹이기 위하여 死人의 무덤에 飲食을 남겨 둔다. 그들은 靈魂이 出入을 못하게 무덤에 구멍을 쏘버 두기도 하고 或은 靈魂이나 오지 못하게하너라고 무덤 위에 土山을 쌓는 일도 잇다. 더 教養이 進步 되면 靈魂의 物質的 性質은 減해 온다. 그리하여 漠然히 呼吸과 同一視한다. 지금 「스피릿트」(精神)이란 이름은 羅甸語의 숨(呼吸)이란 말에 被化되어 왔다. 다시 教養이 進步되어 오면 靈魂은 一層 物質的인 여러 가지 性質을 이저 버린다. 그러나 아직 오래동안 空間을 點有하는 性質을 가지고 잇다 그리야 「靈魂의 所在」에 對해서 無數한 思辨을 되푸리 하고 잇다.